

청소년의 학교밖 배움과 성장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주임교수



지난해 통과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5월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그리고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학령기 청소년들이 연간 7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적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또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서로 ‘학교 밖’과 ‘청소년’에 각각 다르게 방점을 찍으면서 정작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방치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들을 되돌아켜 생각해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법률의 첫 시행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는 출발점일 뿐 중착역은 아니다. 지자체가 그동안 단순하게 해왔던 청소년 상담업무를 그대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육의 혁신과 발전이 성취되기 어렵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가 있었다. 1989년 영화니 벌써 25년을 넘었고 이 영화의 모티브였던 1986년의 여중생 자살사건을 기억한다면 이미 30년이나 된 이야기다. 당시 여중생이 쓴 유서 말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질문은 우리 사회의 입시중심의 교육 경쟁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며 청소년 자살문제, 즉 우리 아이들이 이토록 불행하게 지내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현실에 대한 화두였다. 이후 불붙은 참교육 운동이나 대안교육 운동 모두 그 해답을 찾는 노력과 무관하지 않았다.

80년대의 청소년들에게 선택지는 단 두 가지, 버티거나 죽는 것이었다. 아무리 학교가 재미없거나 힘들고 폭력적인 공간이라고 여겨져도 그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죽음을 선택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죽기 싫으면 인내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획일적인 사회(One-size-fits-all Society)를 살아왔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취향도 다양해졌고 취향을 만족시킬 다양성도 확보되어 있다. 심지어는 다양한 선택권을 뛰어넘어 스스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직접 만드는 맞춤형제작(tailor-made)방식이 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그렇다면 교육을 공식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은 얼마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교육에 대한 맞춤형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 여전히 청소년들에게는 버티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986년 인구 10만명당 4.7명이던 청소년 자살율은 2000년 6.4명, 2010년 9.4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즉 30년 전의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죽느냐 버티느냐의 선택권 없는 선택에만 내몰리지 않고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왔다는 점이다. 199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탈학교생'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어던지겠다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 이제는 한 해에 약 6~7만명이 학교를 그만두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제 아이들에게는 죽거나 버티내는 선택권 아닌 선택권 외에도 학교를 그만두거나 대안교육을 찾아가거나, 혁신학교와 공립형 대안학교 같이 공교육 내 대안을 찾는 선택권이 더 생겨났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이 선택권

들을 더욱 더 다양하게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첫 번째는 '학교를 넘어 배움과 성장을 교육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20여년 전 '탈학교'라고 불렀던 주체적 현상을 이제는 '학업중단'으로 바라보는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이라는 표현 역시 학교를 정상적인 공간, 학교 밖을 비정상적이고 치료가 필요한 공간으로 전제한다. 하지만 학업중단예방이나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이 학교 안으로 아이들을 다시 우겨넣는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이미 교실에서 학생들의 반 이상이 없드려 자고있는 현실은 학업중단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학교 안팎을 구분할 수 없음을 반증한다.

학교만이 '공부하는 일(學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 우리 사회가 배움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학습의 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단순히 상담과 치료, 그리고 복귀의 수준을 넘어 학교 밖 학습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가 담장을 허물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학생들은 지역사회로 나아가 자신의 배움을 익히고 실험하고 실천하는 틀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치단체와 지역사회단체가 전향적으로 협력하여 도시 전체가 학습의 장이 되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위기가 혁신을 낳을 새 기반이 되기를 희망해본다.